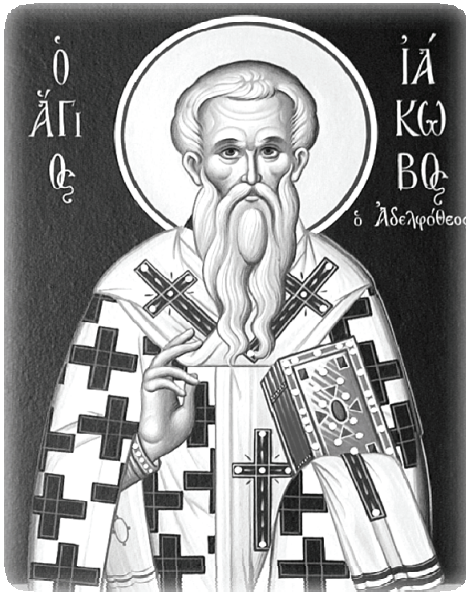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야고보 사도

루가 제6주일

성 아르테미오스 대순교자, 성 게라시모스 수사

제1조, 조과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A 211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65
- 사도경: 갈라디아 5,22-6,2 / 봉독서 344
- 복음경: 루가 8,26-39 / 126. B 7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야고보 사도(주님의 형제)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23일에 주님의 형제 성 야고보 사도를 축일로 기념합니다. 성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의 첫 번째 주교이고, 신약성서 중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은 이 거룩한 서신은 살아있는 믿음과 실천을 설교합니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보서 2:17)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사랑의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실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마태오7: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비판

인간 세상은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복되는 하느님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모습은 그 정도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느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 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느님께 간청하였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열 사람밖에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 열 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요즘 세상은 정치, 사회, 종교, 교육, 모든 분야에서 정신적 혼돈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극한 대립 속에서 이해와 양보를 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공격을 앞장세워 물고 뜯고 죽고 살기로 치고 받아, 기본적 인간의 격을 무너뜨려 거의 동물적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듯 보여진다. 모두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도 왜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지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그저 내가 의인이고 상대방은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니 무엇이 바른지 판단이 서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이런 명언을 해서 우리의 심금을 울렸다. 언젠가부터 그의 명언을 자조 섞인 말로 풀이해서 하는 유행어가 생겼다. “너부터 잘 하세요.” 요즘 한 마디로 딱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다.

“너는 네 형제의 눈 속에 든 티는 보면서 도 어째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

닫지 못하느냐?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더러 ‘네 눈 속의 티를 빼내 주겠다.’고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낼 수 있다.” 대표적인 위선자는 사탄이다. 겉은 의인처럼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악을 일삼는 자가 바로 사탄이고 그의 목적은 세상을 분열시켜 적대시하여 더욱더 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 혼돈을 조장하여 하느님의 존재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잊히게 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의 덕과 윤리와 양심을 사라지게 만든다.

비판은 부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상대방을 해치게 하고 적대시하게 만든다. 물론 어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때에 따라서 지적을 해줄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화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져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좋은 충고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비판의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다 같이 구원의 길로 가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비판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덕을 쌓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부터 이렇듯 솔선수범하고 나아갈 때 세상은 멸망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중 신부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토니 M. 코냐리스 신부



2차 세계대전 때 시몬 비젠탈(1908-2005, 오스트리아 태생의 유대인 홀로코스트 생존자. 작가)은 폴란드의 한 수용소에서 포로로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간호사가 그의 손을 잡고는 어떤 젊은 나치 친위대 군인에게로 데려갔다. 그 군인의 얼굴은 낡은 천으로 싸여 있었으며, 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다. 그는 아마도 스무 살 정도의 나이로 앓아보였다. 그 군인은 비젠탈의 손을 움켜잡고는 유대인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곧, 자기가 힘없는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다는 것과 죽기 전에 용서받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비젠탈에게 자기가 속한 대대(大隊)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와 아이들로서 친위대원들이 불을 지른 한 가옥에서 밖으로 탈출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비젠탈은 사악한 일에 가담하였다가 마침내 죽어가는 사람(군인)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마지막에 그는 군인의 손을 뺄 뻔하고는 방을 나와버렸다. 비젠탈은 그 군인을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바른 일을 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이런 물음으로 이야기를 끝맺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C. S. 루이스(C. S. Lewis: 1898-1963,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영국 작가, 기독교 사상가)는 언젠가 말했다. “모든 사람이 용서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상이라고 말한다. 단, 누군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생길 때까지만...”

우리도 가만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어떨까?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나?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행한 잘못을 바로 용서할 마음이 있나?

▶ 아타나시아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10월 21일(월), 축일을 맞이하시는 전주 성모 안식 성당의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님께 축하드리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훌륭한 사목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장년회 '아킬라와 브리스킬라' 수련회 ▷ 지난 10월 11일(금) ~ 13일(일)까지 장년회 '아킬라와 브리스킬라' 수련회를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약 15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과 요한 박인곤 보제와 함께 '마음의 길: 하느님과의 친교, 우리 서로 간의 친교, 형제를 통한 하느님과의 친교'라는 주제로 영적으로 유익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또한 함께 식사 준비와 식사를 나누며 친교를 가졌고, 12일(토) 새벽에는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님의 인도로 주변에 있는 산에 등산을 했고, 석후과, 조과, 만과, 성찬예배를 드리면서 전례를 통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과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에는 더욱 발전한 수련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슬라브 교인 수련회 ▷ 오는 10월 25일(금) ~ 27일(일)까지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슬라브 교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예배와 기도, 식사 그리고 영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과 재밌는 오락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가을 음식바자회 결산 ▷ 지난 13일(주일)에 성 바울로 성당 부인회와 청장년회는 가을 음식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 음식을 비롯하여 러시아, 루마니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음식이 정성스럽게 장만된 바자회에 교우분들은 물론 이웃 동네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 행사에서 정교회 서적이 50% 한정 할인되어 판매되었고, 예비신자 사무엘 교우가 봉헌한 100여 권의 아동 동화책과 여러 교우분들이 기증한 귀한 물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교우분들이 지방 특유의 음식을 제공해주셨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자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게 되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준비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 성모희보 성당

■ 정기 바자회 ▷ 11월 3일(일)에 정기 바자회가 열립니다. 수익금은 자치구에서 행사하는 어려운 이웃돕기에 협조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해주셔서 뜻깊은 행사를 보낼 수 있도록 교인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간예식 • 10월 26일(토) 성 디미트리오스 대순교자 축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